

자비·평화 메신저로 동분서주

법장 스님, 이라크·미국·북한 방문 결산... '민간 외교' 괄목

북원 불사가 한창인 금강산 신계사에 스님 1명과 재가자 2명이 더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에게 현재 신계사에 있는 제정 스님 의 스님 1명과 재가자 2명이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즉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최근 이라크, 미국, 북한 등을 잇달아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또 "내년 부처님오신날에 북한 신계사와 보현사에 등다는 문제와, 올 9월 법안안 단청 불사 회향식 때 남한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협의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하반기 때 금강산 마하연에 남한 스님이 안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검토하겠다'는 짧은 대답만 들

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장 스님은 또 "북한 고위 관계자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이 진정된 6·15 공동선언 실천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법장 스님은 "앞으로 전국에 상설 모금창구를 만들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북한 방문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주교과와 관련해 법장 스님은 "현실적으로 해외특별교구 설립이 필요하지만 주로 개인사자들이어서 교구 및 교구장 선정, 산하 사찰 통제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뜻을 밝혔다.

한편 법장 스님 미국 방문시 미 정부 대북 관계자를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가 6월 22일 공개됐다.

법장 스님은 친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경계하는 것이 바로 살생"이라고 소개하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류를 대량살상하는 것은 인류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특히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군사행동에 돌입할 경우 그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재앙이며, 전체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불행한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법장 스님 주요 '해외 활동'		
방문지	기간	주요활동
이라크 자이툰부대	5월 11~13일	·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및 중동지역에 전달 · 평화유지군 진정안역할 제시 · 불자장병들에게 자부심과 불교위상 증대
미국 워싱턴, 보스턴, 뉴욕, LA	5월 24일~6월 1일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간외교 사절 역할 수행 · 미주교인 사회에 불교종중의 새로운 전기 마련 ·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세계석학들의 관심과 연구 제안 ·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간 연대교류 활성화 필요성 확인
북한 평양	6월 14~17일	· 6.15대회 개막식에서 명예대표로 연설 · 평양 광범사 남북합동법회 및 남북불교 회담 ·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메시지 전달

각종 수련회 정보다양 신행정보센터 홈페이지 열어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신행정보센터(www.ibuddhism.org)' 사이트를 새롭게 선보이고 6월23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신행정보센터는 웹플스테이와 수련법회 소식을 구분 없이 게재했던 예전과는 달리, 수련법회 소식 위주로 업데이트된다. 또 전국 본사와 말사 실무진이 직접 정보를 올려 전국 수련법회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은비 기자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 '곧 뜬다'

조계종환경위, 실천과제 등 의제 마무리 단계

조계종의 환경 정책 수립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불교환경운동이 '주먹구구식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계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이하 의제21)이 사실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고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불교환경종책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 최종 검토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5개

년 계획. 6월 23일 열린 조계종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5개년 계획은 기존의 종단환경정책평가와 불교환경종책과제 및 계획을 담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 조계종은 전문성 부족과 대응의 일회성, 대안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불교환경정책의 실천과제와 연구과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과 상임운영위원장에 각각 정법 스님(사회부장)과 성호 스님(웅인웅덕사 주지)이 선출됐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호 스님 인터뷰 14면)

김원우 기자

금강산 사찰복원에 협력

현정은 회장 조계종에 약속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4대 사찰복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현정은 회장은 6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신계사를 비롯한 금강산 4대 사찰복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장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냉전 때부터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지를 잘 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도선사 주지 해사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법 스님, 현대택배 김병훈 사장, 김동건 변호사 등이 배석했다.

유철주 기자

"현안 해결에 공조를"

태·천·진 사회부장 손잡아

태고, 천태, 진각종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강원 정원 60명 이하 동화사서 교직자 토론회

6월 22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열린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교육기관 교직자 토론회'에서 강원마다 20~60명 정도의 확인을 두도록 하는 정원기준안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19개 전통강원, 기본선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기본교육기관 소임자 30여명이 참여해 교육원이 마련한 '강원 정원 조정안'을 놓고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강원 당 학년별 학생수를 최소 5명(전체 20명), 최대 15명(전체 60명)의 확인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각 강원원의 특수성을 존중해 현장실사와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각 강원마다 학인 정원을 정하기로 했다.

동화사·배지선 기자

내달 북에 밀가루 전달 조계종 증진회 모금운동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먹을 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1차 모금운동을 7월 2일까지 전개한다. 1차 모금이 끝나는 7월 중순경 밀가루 60톤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연중 모금 제도로 돌입, 굶주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밀가루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02)733-7277 김지연 기자

조계종 신도임원교육 실시 고운사 본말사 임원대상

조계종의 올해 첫 신도임원교육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성 고운사에서 열렸다.

연수회에서는 △승단의 역사와 신도회의 구성 △조계종의 정체성 등에 관한 강연과 주제토론, 시청각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시청각 교육이 처음 실시되는 눈길을 끌었으며, 각 교구 본말사에서 준비했던 연수교육자료를 포교원이 직접 만들어 교육의 통일성을 높였다.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은 올 연말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실시된다. 이은비 기자

"부정·비리 없어...허위 유포 유감"

조계종 기획실장, 박물관 불사 관련 담화문

조계종이 최근 종단상황과 관련해 대변인 기획실장 법안 스님 명의의 담화문을 6월 23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먼저 "최근 몇몇 사찰 주지스님들의 불사관계 비리와 함께 중앙종단이 시행하는 불교중앙박물관 내부시설 공사의 문제로 인해 국민과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특히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총무원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퍼스디자인에 공사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를 낙찰 받은 회사는 '퍼스디자인'이 아니라 '예성에드컴'이라며 "예성에드컴"은 영당 스님이 역사문화기념관 공사 집행위원장이었을 당시 8,800만원의 용역비를 줬 박물관 설계를 맡긴 업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총무원에서 2004년 9월 1일 지급한 공사 선수금 18억8천만원이 '예성에드컴'에 지불했고

'예성에드컴'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며 "계약금을 '예성에드컴'이 아닌 '퍼스디자인'의 사장에게 지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서가 4개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무원장이 결재한 계약 당사자간 법적구속력을 갖는 계약서는 부가제가 포함된 62억원 계약서 하나뿐"이라고 발표했다.

조계종은 또 "이 사건은 전시시설 업체들 간의 담합 등 오랜 관행에 종무원들이 7월말로 예정된 준공 시점을 맞추겠다는 조급한 생각으로 업자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일부 요구에 부응한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조계종은 "종단과 종도가 입을 피해를 생각해 종단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시길 것을 문제를 제기한 스님께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업체 담합 확인...원가재산정 필요"

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 중간조사결과 발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장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6월 23일 중간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된 설계도면 및 사양서의 부실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가산정이 어려웠다"며 "추후에 원가 재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책위는 또 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며 사법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대책위는 18억 8000여만원이 먼저 지급된 것은 계

약서에 도급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대책위 최연 대변인은 "항후 전문감리를 진행해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며, 감리결과에 따라 재시공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대책위는 7월말경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불사관련 제도개선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종교는 인류평화 열쇠" 세계종교지도자 세미나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종교와 평화 세미나가 6월 7일과 8일 양일간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회의장에서 150여 명의 종교 지도자와 석학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유라시아 다이얼로그 플랫폼과 동양 연구소, 러시아 사회과학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대표로

참석한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부처님의 동체자비 사상과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본받고 미린다함 문명에서 제시한 현자의 대화 방법을 종교간의 대화 방법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세계 각 종교 지도자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종교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혐오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충돌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김원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의 에드가 케이지 박진여씨의 놀라운 최면 투시 능력

충격적인 카르마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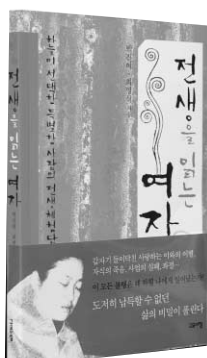
이 책속에 당신이 전생에 지어 놓은 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불치병, 자식의 죽음, 자살, 사업의 실패, 좌절... 이 모든 불행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이 풀린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 02)2198-5789 / 051) 817-6156



그리고 운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절로 깨우치게 한다.



고요아침 값 8,000원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펼쳐지고 그 인과율을 인수분해 하면 사주팔자라는 답이 나온다.

사주팔자는 그 사람의 전생의 성적표이고, 그 성적표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길흉화복과 흥망성쇠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리딩과목

- 내가 외 이런 병에 걸렸을까?
-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 조상묘(음택)를 어디다 쓸까?
- 사찰의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 가족과 전생의 인연은 무엇이었을까?
- 재운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 미래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할까?
- 공부 안되는 이유는 뭘까?
- 동업자와의 인연은 무엇이며 사업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을까?
- 결혼 할 사람과의 인연은 무엇일까?
-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 후원 : 해운대 역사사